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워크숍 :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결과보고서

— < 목 차 > —

I . 행사 개요	1
II . 세부 계획	5
III . 주요 내용	7
IV . 평가 및 개선방향	17

KDI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I. 행사 개요

① 추진배경

- ☐ '지식공유'는 World Bank, AfDB 등에서 개발 구현을 위한 주요 매체로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개발도상국의 효과적인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의 급속하고도 견실한 발전을 목격한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식공유'를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
- ☐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KDI와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등을 목표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추진해왔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주요 대상으로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 ☐ 2009년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구상' 발표 이후,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맞춤형 경제협력관계 구축 및 아시아에 대한 역할과 기여 증대 노력이 본격화
- ☐ 본 행사는 그 일환으로서 KSP의 발전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지식공유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이라는 취지하에 추진됨.

② 주요목적

- ☐ 한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진흥정책, 중소기업 육성정책, 혁신정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고, 국가개발 관점에서 이들 정책의 성과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
- ☐ KDI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KSP 협력대상국이 공통적으

로 안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동남아시아 지역 내 KSP의 저변확대를 꾀함.

- 또한, 동남아 국가들의 정부 및 학계 지역전문가들과 장기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함으로써 세계적인 지식공유 허브로서의 역할 확대

③ 워크숍 개요

- 일 시: 2012년 8월 29일(수)~2012년 9월 1일(토), 출·입국일 포함
- 제 목: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워크숍 :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영문명): Special Workshop on Partnership between Southeast and Korea :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 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 Korea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KRI@UNSW), Korean Studies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KoSASA)
- 주요내용
 -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및 동남아시아 개발경험의 응용사례 공유
 - 중소기업(SME)육성 정책과 국가개발
 - 혁신(Innovation, R&D포함) 정책과 국가개발
 - 수출진흥 정책과 국가개발
 - 한국(KDI)과 아시아지역 협력대상국간의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를 위한 장기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참가자

○ 국내참가자(출장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김 주 훈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발표, 토론
차 문 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발표, 토론
정 성 철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발표, 토론
안 상 훈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부장	발표, 토론
이 진 이*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협력사업1팀 연구원	사업지원
이 중 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사업지원

*공동주최기관인 KRI와의 행사 준비 마무리를 위하여 행사 하루 전인 28일 출국

○ 해외참가자

NAME	TITLE	ORGANIZATION	COUNTRY
Chung-Sok Suh	Executive Director	KRI@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Edy Putra Irawandy	Deputy Minister for Industry & Trade Affair	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	Indonesia
Datuk.Norma Binti Mansor	Professor	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tudies and Politics, University of Malaya	Malaysia
Honorable Senator Edgardo J. Angara	Senate of the Philippines	Senate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Alfredo E. Pascual	President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Philippines
Kua Wongboonsin	VicePresident -ResearchAffairs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Nguyen Van Khan	Rector, 5th President of KoSASA	USSH-Hanoi	Vietnam
Nguyen Huu Ninh	Chairman	Center for Environment Research Edu & Dev	Vietnam
Vo Van Sen	Rector	Univ. of Social Sciences&Humanities, Hochi Minh City	Vietnam
Sunardji, SE, MM	Vice President for Research,	Dev. & Ind Cooperations, Universitas Indonesia	Indonesia

* 별첨 1 참조

4 주요일정

일자	논의 주제
8월 29일 (수)	환영만찬(개발지식공유의 전략적 제휴)
8월 30일 (목)	개회식
	한국형 지식공유 및 국제개발협력 모델
	분과 세션: 국가발전 및 지식공유 -제1세션: 수출 진흥정책 -제2세션: 혁신(Innovation) 정책 -제3세션: 중소기업(SME) 육성 정책
	종합토론 세션
	환송만찬 (협력 및 파트너십: 정책교류를 위한 지역공동체)
8월 31일 (금)	패널토론 세션 (동남아시아와 한국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을 위한 지식 공유) -제1패널: 동남아의 시사점 -제2패널: 한국의 시사점

II. 세부 계획

① 워크숍 1일차 [8월29일 수요일]

2012년 8월 29일(수)		
18:30 - 20:30	Welcome Dinner	
	Saigon Restaurant @ InterCon	
	의장: Prof. Florinda De Fiesta-Mateo	
	Welcome Address	
	18:30 - 18:40	서중석
	18:40 - 18:50	김주훈
	18:50 - 19:00	Prof. Emerlinda R. Roman
	19:00 - 19:10	Prof. Kua Wongboonsin

② 워크숍 2일차 [8월30일 목요일]

2012년 8월 30일(목)						
08:30 - 10:30	개회식					
	Ballroom 1 @ InterCon					
	의장: 서중석					
	개회사 및 기조연설					
	08:40 - 09:00	Registration				
	09:00 - 09:15	Interview				
	09:15 - 09:30	Opening Address				
		김주훈 KDI 부원장				
	09:30 - 09:35	Welcome Address				
		Prof. Nguyen Van Khan				
09:35 - 10:15	Keynote Addresses					
	The honorable Senator Edgardo J. Angara					
	Dr. Nguyen Huu Ninh					
10:15 - 10:30	KDI Special Session: Knowledge Sharing Program					
	차문중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10:40 - 12:00 . 13:00 - 16:00	분과 세션					
	의장: 서중석					
	I. Export Promotion Policy		II. Innovation Policy		III. SME Policy	
	Ballroom 1 @ InterCon		Westlake Meeting Rm 1		Westlake Meeting Rm 2	
	의장: 안상훈		의장: 정성철		의장: 김주훈	
	Korea	안상훈	Korea	정성철	Korea	김주훈
	Philippines	Irawandy	Indonesia	Santosa	Vietnam	Hieu
	Vietnam	Khuong	Philippines	Roman	Thailand	Leelawat
	Malaysia	Mansor	Vietnam	Ngoc Ca	Malaysia	Bakar
	Cambodia	Alburo	Thailand	Srisangnam	Indonesia	Soesilo
	Laos	Insisienmay	Malaysia	Rasiah	Philippines	Raneses
	Thailand	Mahakij	Cambodia	Phirun	Cambodia	Vengny
		Kaewvaree	Laos	Prasonexay	Laos	Souksavath
	Cambodia	Sochindoeun				
	Indonesia	Chea Megse				
Summary		Summary		Summary		

16:00 - 17:00	종합토론 세션					
	Ballroom 1 @ InterCon					
	의장: 서중석					
17:00	Export Promotion Policy		Innovation Policy		SME Policy	
	안상훈	Irawandy	정성철	Roman	김주훈	Leelawat
18:00	환송만찬					
- 21:30	18:00 - 18:30		Registration			
	18:30 - 20:30		Farewell Addresses			
			Prof. Nguyen Van Khanh			
			차문중			
			Prof. Alfredo E. Pascual			
			이재훈			
			Prof. Mohd Hamdi Bin Abd Shukor			

③ 워크숍 3일차 [8월31일 금요일]

2012년 8월 31일(금)		
09:30 - 18:00	Panel Discussions	
	의장: 차문중	
	09:30 - 11:00	Discussion Session 1: Agendas from Southeast Asia
	11:00 - 12:00	Discussion Session 2: Agendas from Korea
	12:00 - 13:00	Lunch
	14:00 - 18:00	Field Study

Ⅲ. 주요 내용



1 워크숍 진행 요약

- 29일(수) 환영만찬에서는 30일(목)~31(금) 워크숍의 목적과 일정을 소개한 후 새로운 공유와 파트너십의 장을 여는 시간을 가졌으며, 초청된 동남아시아 7개국의 참석자들은 지식공유의 기회를 제공한 KDI에 깊은 감사를 표함.
- 워크숍 2일차인 30일(목)에는 개회식, KDI 특별 세션, 분과 세션, 종합토론 세션, 환송만찬 순서대로 진행되었음.
 - (개회식) KDI 김주훈 부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Nguyen Van Khan의 환영사 및 The Honorable Senator Edgardo J. Angara, Dr. Nguyen Huu Ninh의 기조연설이 진행됨.
 - (김주훈, KDI 부원장) 세계평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KSP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시의적절한 리더십과 국민들의 열망으로 이뤄낸 한국 경제발전의 성과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까지도 협력국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

- (Nguyen Van Kahn,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총장)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상호협력 및 배움의 의지가 중요한 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많은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공유·협력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
- (Angara, 필리핀 상원의원) 글로벌화가 진행되어 지식·아이디어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다른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서 기후변화, 식량 및 고령화 문제 등 많은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할 필요
- (Nguyen Huu Ninh, 2007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문화적 유사성,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얻은 압축적 경험과 지식, 특유의 인내심과 근성 등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배워야 하는 이유이며, 녹색기술 개발역량을 축적한 한국은 ‘메콩 강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거나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동남아 국가에 녹색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상호협력 가능

○ (KDI 특별세션: KSP 소개) ‘한국형 지식공유 및 국제개발협력 모델’이라는 주제로 CID@KDI 차문중 소장님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발전경험 및 이에 기반을 둔 KSP의 특성, 과정, 사례 등을 소개하였음.

- 동남아의 정부관료 및 학계 전문가들은 KSP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5개국*의 경과 및 결과를 접한 후, KSP에 대한 커다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였음.

* 5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 (분과 세션) 총 3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수출 진흥정책, 혁신정책,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각 세션의 주제로 하여 한국 및 동남아 7개국의 정책 수립·집행과정, 성과 및 시사점을 논의

- 각 세션별 의장인 안상훈(수출 진흥정책), 정성철(혁신정책), 김주훈(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8개국의 발표 후 토론 진행 및 세션 요약으로 마무리

- (종합토론 세션) 분과별로 선정된 2인의 대표발표자가 분과별 토의내용을 요약 발표하여 전체 참석자들과 그 결과를 공유하였고, 지식공유사업(KSP)을 맡고 있는 CID@KDI 차문중 소장님의 마무리 연설로 30일 워크숍 일정을 마칩.
- (환송만찬) 'New Partnership for Korean Studies in Southeast Asia'라는 주제로 환송만찬이 진행됨.
 - Nguyen Van Khan(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총장 겸 KoSASA 학회장), 차문중(CID@KDI 소장), Alfredo E. Pascual(필리핀대학 총장), 이재훈(영남대 교수), Mohd Hamdi Bin Abd Shukor(말레이시아대학 Deputy Vice-Chancellor)순으로 폐회사가 진행됨.
- 워크숍 3일차인 31일(금)에는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시사점을 공유하는 패널세션과 Field Study 순으로 진행되었음.

2

세부 논의내용

① 분과세션 中 Export Promotion Policy

□ 일시: 2012년 8월 30일(목) 10:40 - 16:00

□ 장소: Inter Continental Ball Room I

□ 참석자: 안상훈(의장)

Irawandy(필리핀)

Khuong(베트남)

Mansor(말레이시아)

Alburo(캄보디아)

Insisienmay(라오스)

Mahakij, Kaewvaree(태국)

Sochindoeun(캄보디아)

Chea Megse(인도네시아)



□ 주요내용:

- **(한국)** 60년대부터 수출 진흥정책을 추진했던 한국 정부가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산업 합리화, 인적·물적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환경 조성, 법인세율 및 관세율의 적절한 인하, 시장개방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지속적 수출증대를 가능케 했던 사례 제시
- **(필리핀)** 수입대체를 위한 인위적 보호조치가 수출 잠재력 있는 하부산업의 경쟁 저해로 이어졌던 필리핀의 사례를 소개하였고, 수출 진흥을 위한 핵심요소로 생산 및 무역 인프라 구축, FDI 촉진, 환율정책 보조 등을 강조
- **(베트남)** 수출자유지역 지정, 세액 공제 및 수출신용 제공,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 최근 10여 년 간 베트남 수출의 양적 증대를 이끌었던 정책들을 설명하고, 질적 증대 및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논의
- **(말레이시아)** 1957년부터 시작된 4단계 수출 진흥정책을 설명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조, 개방화, 제조업 수출증대, 자유화 및 산업화 등 성공요인을 제시
- **(캄보디아)** 수출전략 구상 시, 정부와 민간 수출기업들의 개별적 특성 및 WTO, AFTA, CEH, EUEBA 등의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
- **(라오스)** 2011년 시작된 무역발전전략 NSEDP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수출환경, 정부행정 및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제시
- **(태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11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의 주요 어젠다 및 세부전략을 소개

② 분과세션 中 Innovation Policy

- 일시: 2012년 8월 30일(목) 10:40 - 16:00
- 장소: Inter Continental West Lake Meeting Room I
- 참석자: 정성철(의장)
Santosa(인도네시아)
Roman(필리핀)
Ngoc Ca(베트남)
Srisangnam(태국)
Rasiah(말레이시아)
Phirun(캄보디아)
Prasonexay(라오스)



□ 주요내용:

- **(한국)** S&T 기반구축 및 모방을 통한 기술습득 단계에서 최첨단·고부가가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조합,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인적자원 축적 및 민간역량 배양 등의 핵심적 성공요인을 도출
-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촉진 및 확장을 위한 마스터플랜(MP3EI)의 핵심요소인 혁신(Innovation)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미·거시적 수준의 혁신 시스템을 소개
- **(필리핀)** 필리핀의 혁신체계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혁신정책의 핵심요소로서 물적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인력 확보와 함께 민간참여 및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
- **(베트남)** 지금까지 이뤄진 혁신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을 제시하고, 한국의 일관성 있는 정책들, 적시적인 인적자원 확충, 민관협력 등의 사례로부터 시사점 도출

- (태국) 한국의 고등교육 촉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BK21 (Brain Korea 21) 정책과 태국의 혁신정책 NRU Project (2009~2012)를 비교분석한 결과 제시
- (말레이시아) 제조 기업들을 슈퍼마켓의 첫 번째 혁신 패턴인 '창조적 파괴'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인 '창조적 축적'으로 유도하는 혁신정책을 강조
- (라오스) 라오스 S&T 마스터플랜의 추진배경, 전략 및 정책들을 소개

③ 분과세션 中 SME Policy

□ 일시: 2012년 8월 30일(목) 10:40 - 16:00

□ 장소: Inter Continental Ball Room II

□ 참석자: 김주훈(의장)

Hieu(베트남)

Leelawat(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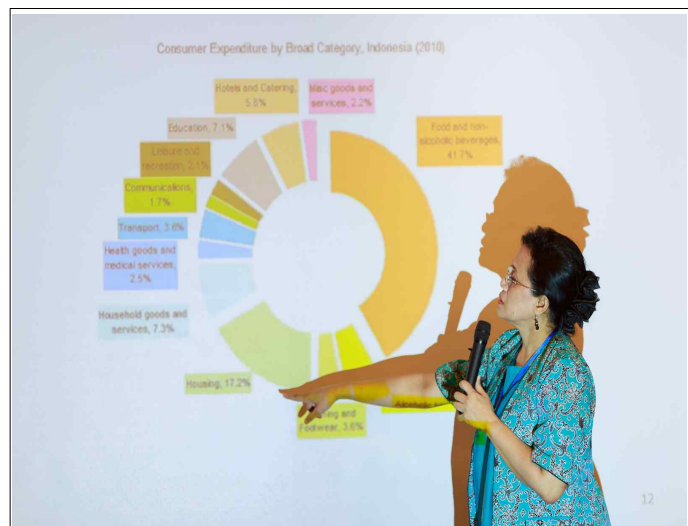
Bakar(말레이시아)

Soesilo(인도네시아)

Raneses(필리핀)

Vengny(캄보디아)

Souksavath(라오스)



□ 주요내용:

- (한국) 한국의 발전 단계별 SME 특징을 설명하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SME의 뚜렷한 입지 개선이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공적자금을 통한 과잉보호를 줄이고 개별기업의 경영실적이 아닌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SME 정책틀 재편을 주장

- **(베트남)** 기업경영 및 투자 관련 법제도 개선, 금융 및 신용지원, 중소기업의 역량배양 지원 등 SME 발전 5개년 계획의 요점을 설명하고, 베트남 SME 정책의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
- **(태국)** 추진 중인 제3차 SME 발전계획의 핵심전략으로 운영관리 역량 개선, 제품경쟁력 및 시장조건 개선, 지역적 특성 활용, 무역역량 제고 등을 제시
- **(말레이시아)** 정부는 SME 발전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은 역량 강화와 함께 주체들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민관협력의 사례로 PEMUDAH를 언급
-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진은 '고용 없는 성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폭넓게 고려한 SME 정책이 필요하며 세부담, 재정문제 해소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
- **(필리핀)** OTOP와 같은 SME 정책 성공사례들을 설명하고, 정부 보조의 수혜대상 최적화, 교육·훈련기관 개선을 통한 기술력 향상, 성공적 SME의 Best Practice 공유, ICT 활용 장려, 신빙성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점 제시
- **(캄보디아)** 지난 SME 정책을 규제 및 법적 측면, 재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설명하고, 경영환경 개선, 기술력 향상, 투자촉진, 연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
- **(라오스)** SMEs가 겪는 세부담, 재원 및 고급노동력 조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발굴 및 실시할 필요

4] 종합토론 세션

□ 일시: 2012년 8월 30일(목) 16:00 - 17:00

□ 장소: Inter Continental Ball Room I

□ 패널: 서중석(의장),
안상훈, Norma, Irawandy
(수출 진흥정책),
정성철, Roman(혁신정책),
김주훈, Leelawat(SME정책)



□ **주요내용:** 분과별 토의내용을 순차적으로 요약·발표하여 참석자 모두가 그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계획을 제안

○ **(Opening remarks, 서중석)** 종합토론 세션은 분과주제에 대한 토의결과를 공유하고, 각 국 정책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 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새로이 형성된 협력관계를 진전시킬 발판을 만드는 자리

○ **Export Promotion Policy**

- **(안상훈)** 1960년대부터 강력한 수출 진흥정책을 추진했던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 및 결과를 요약
- **(Norma)** 분과토의에서 얻은 결론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
 - 무역과 경제성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수출 진흥정책은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WTO가입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줌.
 - 효율적인 수출 인프라 구축, FDI를 통한 지식 및 기술흡수, 수출상품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확도 제고, 다국적기업(MNC)의 횡포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구축, R&D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
- **(Irawandy)** ASEAN 국가들은 공동의 Master Plan을 추진하는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행사

역시 한국 및 ASEAN국가들의 발전경험에서 배울 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 일환

- 자연자원 활용, 부정부패 축소, 민영화 및 자유화 추진 등 향후 개선과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동의 노력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임.

○ Innovation Policy

- (정성철) 7개국 혁신정책의 어젠다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혁신정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 인도네시아: 인종·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혁신시스템 도입
 - 필리핀: 포용적 성장정책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
 - 베트남: 시설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의, 농업중심에서 산업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 태국: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혁신
 - 말레이시아: 기술의 학습·모방 단계에서 기술혁신 단계로의 진화를 통한 중진국 함정 탈출
 - 캄보디아, 라오스: 중장기 정책목표의 건실한 달성을 위한 역량강화
- (Roman) 이 자리에서 공유된 지식 및 개선점이 각 국에 유용한 형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천 지향적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SME Policy

- (김주훈)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있어 8개국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하고 향후과제 제시
 - 중소기업 육성으로 균형잡힌 경제기반을 구축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이룩한다는 목표는 8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육성수단의 경우 법제도 확충 및 지원기관 설립 등이 유사
 - 재원조달의 어려움, 기술 및 인력 확보문제, 낮은 시장 접근성 등은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며,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한 문제 등 해당 국가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과제가 존재(예: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를 추진했던 한국의 경우 기업 간 생산성 격차, 비대칭적 교섭력 등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 (Leelawat) 역량강화 연수 및 정보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질적 문제인 재원 조달문제의 해소방안 모색
 - 말레이시아의 SME Emergency Fund, 그리고 한국의 R&D 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및 특허관리 정책 등은 벤치마킹 필요

☐ **5** 패널토론 세션

☐
일시: 2012년 8월 31일(금) 09:30 - 12:00

☐
장소: Inter Continental Ball Room I

☐
주요내용: 시사점에 대한 추가 논의 및 동남아시아 발전방안 모색

- 동남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협력 및 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설계 시 각 국의 역사 및 정치·경제 발전단계 등을 고려해야 함.
- R&D 성과에 대한 보상, 정보 불균등 개선 등을 위한 노력 필요

IV. 평가 및 개선방향

1 평가

- 연사·세션 구성 및 진행이 전반적으로 워크숍의 목적인 '지식공유', '네트워크 구축'에 부합하였고, 참석자들 역시 커다란 관심과 열정을 보였음.
 - 각 국의 정책 결정자, Think-Tank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되어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음.
 - 분과 세션의 내용을 모든 참석자가 공유·토론하는 종합토론 세션을 편성한 것도 적절하였음.
 - 개회식, 분과 및 종합토론 세션이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대체적으로 주제와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음.
 - KRI@UNSW, KoSASA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초청된 참석자들은 본 워크숍 직전에 진행된 KoSASA Conference 일정에서부터 함께하면서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갖고 워크숍에 참여
 -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부문의 참석자들 간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향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기대
- KDI는 이번 행사로 KSP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국적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Think-Tank 및 지식공유허브로서의 위상을 제고함.
 - 워크숍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고 KSP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
 - KSP의 중요한 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의 개발정책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면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KSP의 지역별 전문성 향상
 - 각 국의 지역전문가 및 정부관료들과 구축된 지식공유 네트워크는 향후 한국 발전경험의 Glocalization*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

* Glocalization: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세계화(globalization과 localization의 합성어)

- 각국의 방송국 및 신문사의 높은 취재 열기 및 보도*

* 별첨 2 참조

② 개선방향

-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라는 워크숍 취지를 보다 살리기 위해서는 분과 및 종합토론 세션을 보다 내실있게 구성할 필요
 - 분과 세션의 경우 각 국의 발표분량에 비해 할당된 시간이 다소 부족하여 준비된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기 어려웠으며, 시간초과로 종합토론의 시간부족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넉넉한 시간 안배가 요구됨.
 - 참석자들의 개인일정을 고려할 때, 워크숍 기간의 확장보다는 세션별 할당시간 조정 혹은 발표자의 시간 준수가 현실적 대안임.
 - 종합토론 세션의 경우 분과별 토의내용의 요약에서 나아가 의견차가 있었던 주요쟁점들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면 서로 다른 분과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의견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이번에는 분과별 요약이 주를 이뤘고 의견교류는 활발하지 않았음.
 - 하나의 분야를 다른 분야의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개발정책들의 일관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유용한 아이디어 도출을 기대
 - 연사들이 타 분과의 쟁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토론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시간할당이 필요
 - 분과 수가 늘어날 경우, 서로 관련성이 높은 분과들을 묶어 복수의 종합토론 세션을 구성
- 이번 행사를 통해 형성된 한-동남아 간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유지·발전시키는 후속조치가 필요
 - 정책경험·지식 공유의 장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유지·발전시킴으로써 향후 동남아와의 지식공유 활성화와 이를 통한 KSP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 참여국들의 공통적인 주요 이슈들 중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식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행사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있음.
 - 당면과제 혹은 이번에 논의된 쟁점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워크숍에서 발표